2022-09-05 (2022-33호)

9월 5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보다 빠른 달러/원 상승... 유로·외인 주식 동향 주목

서울, 9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확산 강도와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 따라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45-1,380원이다.

원화가 달러 강세 모멘텀에 휘둘리고 있지만, 지난 한 주간은 원화 약세 속도가 유독 가팔랐다.

주간 달러지수 상승률은 0.7%였던 반면 달러/원 상승률은 2.4%에 달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외 달러/위안 상승률은 약 0.3%에 그쳤다.

달러/원 환율이 장 중 이렇다 할 저항 없이 상승 탄성을 확대하는 흐름이 연일 반복되자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는 더욱 위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주 환율은 달러 강세 확산 정도를 반영하겠지만, 원화 자체적으로 상승 탄성이 더 확대될 리스크도 열어둬야겠다. 외환당국의 시장 변동성 관리에 대한 경계감이 크지만, 미세조정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데다 당국 물량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에도 견조한 달러 매수세에 환율이 일간 고점 부근으로 상승 마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이 유의미하게 꺾이지 않는 한 달러/원 상승세가 꺾일 리가 없고, 최근 달러보다 달러/원 상승 압력이 가팔라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주 환율 역시 단기 고점에 대한 인식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1,400원대 현실화가 높아진 가운데 수급 주체들의 매물 공급도 한층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독일과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무기한 연장함에 따라 에너지발 위기가 재점화됐다. 이에 따른 위험 회피 확산 여부 따라 주 초반 국내외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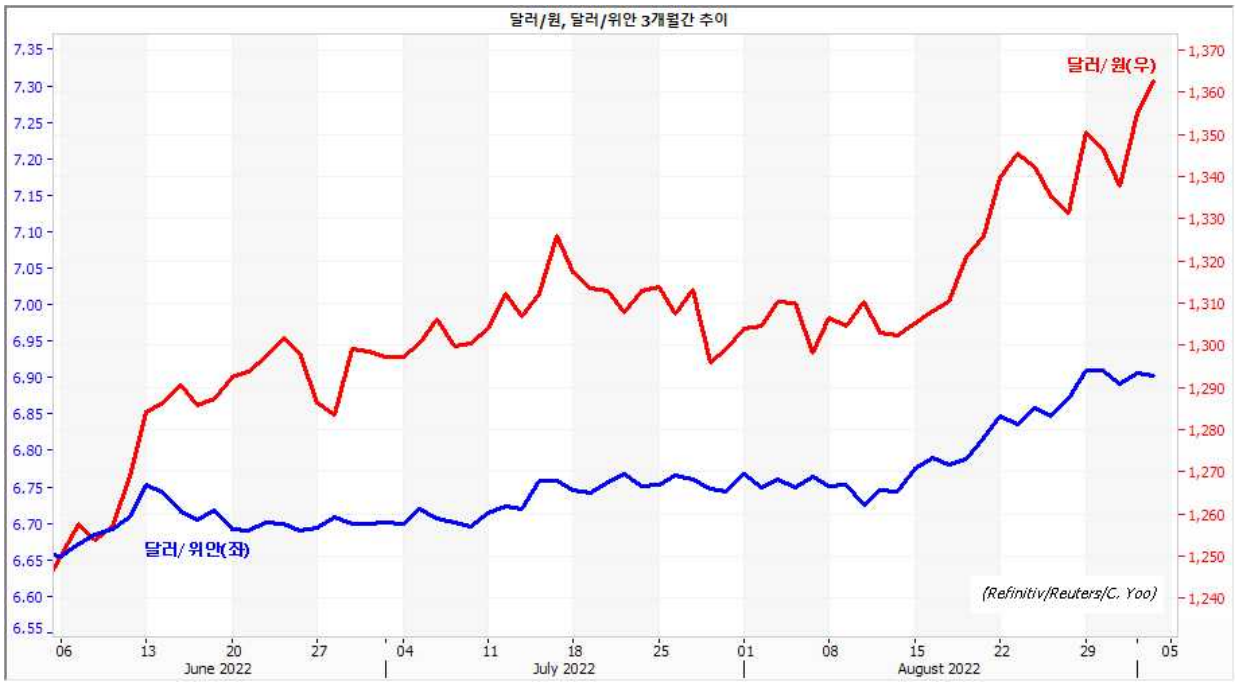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5일 열릴 예정인 석유수출국기구 및 비회원 협력국(OPEC+) 회의 결과에 따른 유가 반응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유로 행보도 관심이다. ECB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 축소에 따른 유로 강세도 예상되지만, 에너지 공급 우려 속 강도 높은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불안도 한층 커진 만큼 이를 둘러싼 시장 해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 캐나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주요국 통화 긴축 여파 속 글로벌 경기 부진이 부추기는 반도체 주가 약세가 국내 증시를 비롯한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화를 둘러싼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원화는 약세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금주 발표되는 국내 주요 경제지표로는 7월 국제수지(잠정)다. 한편 대외 경제지표로는 미국 8월 제조업·비제조업 PMI, 미국 연준 베이지북, 중국 8월 수출입 등이 있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5일(월)

⊙ 한국은행: 2022년 8월말 외환보유액 (06:00)
⊙ 기획재정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7:30)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09: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기부·금융위·금감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10:00)
⊙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0:00)
⊙ 한국은행: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BOK이슈노트 2022-31) (12:00)
⊙ 한국은행: 베버리지 곡선을 통한 노동시장 평가: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BOK이슈노트 2022-32) (12:00)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12:00)
⊙ 금융위원회: 추석연휴기간 소비자 편의증진·자금지원 대책 (12:00)
⊙ 금융감독원: '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12:00)
⊙ 기획재정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시행 (16:00)

9월6일(화)

⊙ 금융감독원: 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10:00)
⊙ 한국은행: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BOK이슈노트 2022-33) (12:00)
⊙ KDI: KDI FOCUS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12:00)
⊙ 금융감독원: 원장 임원회의 (16:3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증권형 토큰의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 (배포시)

9월7일(수)

⊙ 한국은행: 2022년 7월 국제수지(잠정)(08:00)
⊙ 기획재정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09:30)
⊙ 금융감독원: 원장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권 간담회 (10:30)
⊙ 한국은행: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BOK이슈노트 2022-34) (12:00)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BIS 총재회의」참석 (12:00)
⊙ KDI: KDI 경제동향(2022. 9) (12:00)
⊙ 금융감독원: '22.6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12:00)
⊙ 기획재정부: 부총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생방송) (13: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환사채 시장동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배포시)

9월8일(목)

⊙ 금융감독원: 2022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06:00)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한국은행: 2022년 추석 전 화폐공급 실적 (12:00)
⊙ 한국은행: 2022년 8월중 금융시장동향 (12:00)
⊙ 한국은행:「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2년 9월) (12:00)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2.8월 가계대출 동향 (12:00)

9월9일(금)

⊙ 공휴일 특이 일정 없음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5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최종치	8월		49.2
9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8월		55.5
9월5일	17:00	유로존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8월	50.2	50.2
9월5일	17:30	유로존	센틱스지수	9월		-25.2
9월5일	18:00	유로존	소매판매 YY	7월	-0.3%	-3.7%
9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7월		3.5%
9월6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최종치	8월		44.1
9월6일	23:00	미국	고용추이	8월		117.63
9월6일	23:00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8월	54.8	56.7
9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8월		1,323.0B
9월7일		중국	수출YY	8월		18.0%
9월7일		중국	수입YY	8월		2.3%
9월7일		중국	무역수지	8월		101.26B
9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7월		4.1
9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7월		-0.6
9월7일	18:00	유로존	GDP 수정치 YY	2분기	3.9%	3.9%
9월7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9월2일 주간		260.1
9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8월		3.104T
9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8월		1.8%
9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7월		-132.4B
9월8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2분기		0.5%
9월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29일 주간		232k
9월9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7월		40.15B
9월9일	10:30	중국	PPI YY	8월		4.2%
9월9일	10:30	중국	CPI YY	8월		2.7%
9월9일	23: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7월	0.8%	0.8%
9월9일	23:00	미국	도매판매 MM	7월		1.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5일(월)
⊙ 휴장국가: 미국(노동절)

9월6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통화정책회의 (오후 1시30분)
⊙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브뤼겔 싱크탱크 컨퍼런스 연설 (오후 9시)

9월7일(수)
⊙ 캐나다은행, 금리 발표 (오후 11시)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마켓뉴스인터내셔널 웹캐스트 연설 (오후 11시)
⊙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이사, TCH+BPI 연례 컨퍼런스 연설 (8일 오전 0시55분)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8일 오전 3시)

9월8일(목)
⊙ 필립 로우 RBA 총재, 아니카재단 연설 (오후 12시05분)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발표 (오후 9시15분)、기자회견 (오후 9시30분)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듀페이지칼리지 경제포럼 Q&A세션 참석 (9일 오전 1시)

9월9일(금)
⊙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은 주최 컨퍼런스 개회사 (오후 11시)
⊙ 휴장국가: 대만

▶ 금주 세계 5대 이슈

⊙ ECB 금리 인상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두 번째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정책을 긴축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두 자릿수에 다가서면서 이제 ECB가 7월과 같이 50bp를 인상할지, 아니면 그보다 큰 75bp 인상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골드만삭스 등 일부는 최신 물가 지표 공개 후 75bp 인상 전망으로 돌아섰고, 몇몇 ECB 관리들도 75bp 인상이 적어도 논의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자벨 슈나벨 정책이사는 중앙은행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침체로 이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OPEC+ 회의
원유 시장은 5일 석유수출국기구 및 비회원 협력국(OPEC+) 회의 이후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감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OPE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공급 우려가 악화되면서 올해 에너지 비용이 급증했고 세계 경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다만 여름 동안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속에 연료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며 유가 상승세는 진정됐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29일 배럴당 105달러까지 상승한 뒤 93달러 부근으로 후퇴했다.

⊙ 영국 차기 총리의 과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겸 집권 보수당 대표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감세 공약을 내세운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의 당선이 유력하다. 경쟁 후보인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정책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공공 재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임 총리는 수십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영란은행은 물가 급등에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는데, 경제는 영란은행의 전망대로라면 2024년까지 지속될 침체에 곧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비용 급증 등 각종 이슈들에 더해 새 총리는 금융시장도 진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더 부진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영국 자산을 매도하면서 지난달 영국 국채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월간 성적을 냈고, 파운드 가치는 2년 반 만의 최저치로 하락했다.

⊙ 호주 - 캐나다 금리 추가 인상 전망
호주 중앙은행(RBA)은 6일 20여년 만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50bp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RBA는 5월 이후 매달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RBA 정책 결정권자들과 애널리스트들,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금리가 더 인상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필립 로우 총재가 2024년까지 금리가 인상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RBA는 처음에 상황을 크게 잘못 판단한 바 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도 호주달러 가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 호주달러는 달러 대비 6주 만의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도 7일 또 한 차례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서비스업 지표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경로 추측에 참고할 만한 공급관리협회(ISM)의 월간 서비스업 서베이가 6일 발표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수일간 하락했다.

ISM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지속하리라는 전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7월 미국 서비스업 활동은 예상과 달리 반등해, 연이은 금리 인상에도 경제 상황이 양호함을 시사한 바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은 8월 서비스업 PMI가 54.8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달러/원 월간 전망 ①) - 강달러에 상승 전망 앞도적... 연준 회의 변곡점 지목

9월1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강달러 모멘텀 확대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달러/원 환율은 9월에도 상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16.5-1,373.3원으로 파악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월간 환율 거래 범위를 매우 넓게 제시하면서 환율이 대외 여건 따라 변동성을 대폭 키울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경로를 가늠하면서 이에 따른 달러 움직임을 원화가 긴밀하게 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9월부터 연준 자산 긴축 규모가 2배로 확대되고,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강달러를 완화시킬 요인을 당장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달러/원 월간 고점을 1,380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준 회의를 소화한 이후 불확실성 해소 등에 환율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는 의견도 엿볼 수 있었다.

(번역 유춘식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②) - 강달러에 상승 전망 압도적... 연준 회의 벼곡점 지목

9월1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강달러 모멘텀 확대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달러/원 환율은 9월에도 상방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16.5-1,373.3원으로 파악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75bp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 자산 가격 조정이 맞는다는 연준 스탠스가 분명하고 그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 속에서 경제 심리와 경제 성장은 일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역내외 수급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예상하기 힘들다. 당분간 환율의 지지부진한 상승 추세가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80원

▲ 서창조 과장 (우리은행)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상 스탠스, 유로존 내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9월말 FOMC 전까지 달러화 강세 압력 지속 예상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75bp 금리 인상 기대감, 글로벌 에너지ㆍ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70원

▲ 유원준 팀장(중국공상은행)
"절대적 환율 레벨이 과거 위기급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와 비슷한 수준의 원화 약세폭이라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몇몇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 급격히 절하되는 상황에서 원화를 국제적 지위를 가진 통화들과 비교하며 안심하기엔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국채 2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10년 금리는 과거 고점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 중이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 강세가 아니라면 결국 리스크 오프 심리를 지켜봐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9월 중 급격한 증시 하락으로 저점이 돌파된다면 달러/원은 1,400원을 테스트할 수 있겠다. 한편 최근 안정을 보이는 유가 상승 여부가 관건이다. 증시와 유가 변수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환율은 9월 FOMC 회의까지 어느 정도 높은 레인지를 유지하다 연준의 금리 인상 후 소폭 레벨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15-1,375원

▲ 이응주 차장(DGB대구은행)
"현재로선 미국 연준이 기대 인플레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나온 물가 지표를 보면 인플레 고점은 지났을 가능성도 보이는데 고용과 물가 지표 결과를 통해 현재 인플레 국면에 대한 시장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플레 고착화 평가가 내려지면 환율은 1,38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근 시장 반응은 오버슈팅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환율은 1,350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 예상 거래범위 1,290-1,380원

▲ 임기묵 차장 (IBK기업은행)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발언으로 물가가 낮게 나와도 달러/원 하단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서프라이즈이므로 달러 강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 게다가 9월에는 QT 확대로 달러 강세 이슈가 더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월초에는 유로존 75bp 금리 인상 이슈로 유로 저점 지지 가능성에 달러 상승세는 다소 제한될 수는 있겠다. 이후 FOMC 회의를 앞두고는 강달러 이슈를 반영하다 회의 이후는 불확실성 해소와 분기말 수출 업체 네고 물량 등으로 환율 하향 안정 기대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 신원희 차장(KB국민은행)
"미국 9월 FOMC 회의에서 빅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유로 지역의 에너지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 OPEC 산유국의 감산 합의 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은 모두 위험 회피 요인으로 환율 상승 요인이다. 다만, ECB의 빅 스텝 예상,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이후 속도 조절 기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은 달러화 강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FOMC 이후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환율의 하락 되돌림이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60원

▲ 류홍 대리(KDB산업은행)
"9월 FOMC 회의까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가늠하며 강달러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달

러/원은 수급보다 위안화를 포함한 기타 통화 흐름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국내 무역 적자 확대와 더불어 중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 및 통화 완화 정책, 유럽 에너지 위기가 달러/원 상승 재료다. 다만 ECB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월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 고점 인식 매도 및 월말 네고 물량 유입에 상단은 제한될 듯하다."
- 예상 거래범위 1,335-1,375원

▲ 성혜미 과장(NH농협은행)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환율 하락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연준의 공격적 긴축 기조 유지, 유럽 에너지 위기 및 가뭄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및 유로화 약세, 중국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중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 국내 무역수지 적자 심화 등에 달러 수요가 증가하며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환율 상승세에 매도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수출업체들이 분기 말 네고 물량 출회에 나서고, 9월 FOMC 회의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환율은 소폭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20-1,380원

▲ 오창섭 연구원(현대차증권)
"9월 FOMC 75p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FOMC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을 감안할 때 9월 FOMC에서 75bp 자이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연준 자산 긴축 규모가 월간 475억달러에서 950억달러로 2배 늘어난다는 점도 달러 강세 요인이다. 9월에도 환율 상승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70원

▲ 안영진 연구원(SK투자증권)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금리 상승, 달러 강세를 강하게 시사한다. 9월 FOMC 회의에서도 75bp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즉각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또한 각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때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 기대했던 소위 'Bad is good'이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험자산에 미칠 영향도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달러/원이 1,350원 선을 상향 돌파할 경우 1,400원을 향해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13년 만에 보는 환율 수준에 저항선과 지지선 이후에는 매물대가 매우 얇기 때문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30-1,38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미국 긴축과 더불어 이것으로 파생되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달러를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했지만 중앙은행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오버킬 하는 방법으로 인플레를 완전히 항복시킬 것이다. 이 경우 달러 강세 유발이 다시 유럽과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어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게 된다. 더불어 9월부터는 미국의 소득세 납부와 QT 규모 2배 증액이 겹치며 달러 유동성도 대폭 감소한다. 이에 당분간 강달러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23-1,38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미국 외 지역의 부진한 경기, 연준의 매파적 기조 등을 고려하면 강달러 압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실질금리는 플러스인 반면 독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국면에 있어 상대적 긴축 속도도 여전히 미

국이 우위이다. 한국은 9월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환율의 방향성이 바뀌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위안화 약세가 더해지며 환율 레벨이 올라왔다. 아시아 통화 내에서도 원화의 환율 내재 변동성이 위안화, 대만달러화 대비 크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내수 부진에 처한 중국은 실질 구매력 방어 차원에서라도 가파른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 레벨에서 달러/원 추가 상승 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며, 1,300원 초중반의 환율 흐름을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55원

(편집 유춘식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62.6	-2.3%	-12.8%	-8.6%
100엔 대비	971.7	0.4%	6.3%	+1.8%
유로 대비	1,356.1	-1.4%	-0.3%	-1.9%
위안 대비	197.47	-1.1%	-5.3%	-11.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코스피	2,409.41	-2.9%	-19.1%	+3.6%
코스닥	785.88	-2.1%	-24.0%	+6.8%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3Y	3.678%	15.3bp	188.0bp	+82.2bp
국고채 5Y	3.769%	15.4bp	175.8bp	+67.6bp
국고채10Y	3.738%	12.2bp	148.8bp	+53.7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유가(WTI)	87.25	-6.2%	15.6%	+55.8%
금(현물)	1,712.44	-1.5%	-6.4%	-3.6%
TR상품지수	3,442.78	-3.0%	3.1%	+24.6%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유로	0.9953	-0.1%	-12.5%	-6.9%
엔	140.22	-1.9%	-17.9%	-10.3%
위안	6.9015	-0.4%	-7.9%	+2.7%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318.44	-3.0%	-13.8%	+18.7%
나스닥	11,630.86	-4.2%	-25.7%	+21.4%
S&P500	3,924.26	-3.3%	-17.7%	+26.9%
MSCI APxJP	506.38	-3.6%	-19.6%	-4.9%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미국채 2Y	3.390%	1.0bp	266.0bp	+61.0bp
미국채 10Y	3.190%	16.0bp	168.0bp	+59.5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한국 5Y	32.8bp	-0.2bp	10.7bp	-0.7bp
일본 5Y	21.2bp	-1.1bp	3.5bp	+2.1bp
중국 5Y	76.2bp	8.9bp	35.0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